

한정호의 클래식 슈퍼스타즈

한정호
공연평론가·에투알클래식 대표



9월 라 스칼라 필하모닉에 이어, 11월 빈 필·베를린 필·로열 콘세르트헤바우의 내한을 앞두고 10월에도 세계 정상 악단들이 잇달아 한국을 찾는다. 런던 필하모닉, NDR 엘프필하모닉, 체코 필하모닉이 차례로 서울 무대에 오르지만, 에너지와 완숙함을 겸비한 가장 역동적인 조합은 단연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닉(21~22일, 예술의전당)이다. 이번 공연은 두다멜의 국제적 명성이 어디서 비롯됐고, 그것이 어떤 상업적 효과로 이어지는지 서울 관객이 직접 확인하는 현상이 될 것이다.

주빈 메타처럼 LA 필서 뉴욕 필 수장으로 2025년 현재 미국 클래식 시장을 대표하는 절대 지존은 두다멜이다. 올가을 그는 LA 필하모닉 음악감독으로 최종 시즌을 보내면서 동시에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 지명자로 '히니문'을 즐긴다. 그의 이동은 단순한 자리 교체라 아니라, 1970년대 말 주빈 메타가 촉발했던 두 도시의 문화적 긴장을 다시 불러왔다. 스타를 두고 서부와 동부가 맞붙는 구도는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의 월드시리즈를 연상시킨다.

그를 '백 년에 한 번 나오는 재능'이라 극찬했던 '홍행 여왕' 데보라 보르다가 이미 LA 필에서 뉴욕 필 행정감독으로 옮긴 터라 LA 문화계의 상실감은 더 깊다. 가장 부재 시대를 메울 인재로 두다멜이 지금 위치에 오르기까지, 업계가 치러온 분투의 세월이 곧 21세기 클래식 비즈니스의 역사라 할 만하다.

1981년 베네수엘라 바르키시메토에서 태어난 두다멜은 열두 살에 음악 공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템마'로 지휘봉을 잡았고, 18세에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가 되었다. 2004년 말러 지휘 콩쿠르 우승으로 국제 무대에 공식 데뷔하기 전부터 베를린 필하모닉, 도이치그라모폰, 매니지먼트 아스코나스홀츠가 그를 일찍이 주목했는데, 그 배경에는 전 베를린 필 수석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존재가 있었다. 아바도는 1990년대 후반 카리카스에 머물며 라틴 음악가들과 교류했고, 말러 체임버 오케스트라 투어 중 두다멜의 리허설을 지켜본 뒤 2000년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를 베를린에 초청했다.

베를린 필 후임 수석 지휘자 사이먼 래틀은 아바도 소개로 두다멜을 만나 2004년 자신의 조수 지휘자로 불렸다. 두다멜은 베를린 외곽의 친구 집에 머물며 밤낮없이 필하모닉에 드나들었고, 때로는 홀에서 잠을 잘 정도로 단원들과 가까워졌다. 2006년 도이치그라모폰 데뷔 앨범이 나왔고, 아바도와 래틀이 품질 보증을 썼다. 열정적일 뿐 아니라 마디 번호까지 또렷히 기억하는 '준비된 지휘자'라는 평가가 공연 전부터 유력 관계자의 입에서 전해졌다. 아스코나스홀츠는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데뷔, 루체르 페스티벌 빈 필 지휘를 주선했고, 2009년 마침내 LA 필하모닉 수장에 올랐다.

2015년, 래틀의 후임 베를린 필 수석지휘자 인선 과정에 두다멜의 이름이 오르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는 후보 등록을 사양했다. 1차 투표에서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안드리스 넬손스가 경합하고, 2차 투표에서 제3의 후보 킬리 페트렌코가 선출되는 순간부터 그의 이름이 다시 차기 후보군에 오르내렸다. 최고의 음악 엘리트들 사이에 두다멜의 존재감은 예술성에 기반해 평가받고 있다. 지금도 매 시즌 한두 개 프로그램을 베를린 필과 정기적으로 선보이고, 야외 공연인 발트뷔네 콘서트를 수시로 지휘하며 베를린 필의 '얼굴' 역할을 분담한다. 과거에



1 베네수엘라 출신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 2 두다멜의 말러 교향곡 9번 앨범. 말러 교향곡의 서사 표현 능력이 특출나다.

〈중앙포토〉

아바도·래틀이 앨범 보증했다 100년에 한번 나올법한 지휘자

〈도이치그라모폰 데뷔 앨범〉

는 수석 지휘자 외에는 해외 투어를 자제했던 베를린 필이 올여름 두다멜과 함께 일본 단독 투어에 나선 사실이 양측의 유대 관계를 선명히 보인다.

두다멜의 음악적 장점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오케스트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남미 레퍼토리부터 베토벤, 번스타인에 이르는 다양한 사조를 생동감 있고 서정적으로 결합하는 해석력이 두드러진다. 특히 말러 교향곡에서 격정적인 에너지와 세밀한 감정선을 결합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서사를 청중이 온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능력이 특출하다. LA에서는 YOLA로 상징되는 교육 프로젝트와 팝 페스티벌 '코첼라' 무대에 등장하는 대중적 행보를 통해 전통적 관객층을 넘어 새로운 세대와 만나는 최전선에 서 있다. 최근에는 록밴드 톨드플레이의 엘

베네수엘라 출신 구스타보 두다멜

‘엘 시스템마’ 거쳐 18세에 지휘자로

아바도 신임받아 데뷔 전부터 주목

2009년 LA 필하모닉 음악감독 올라

폭발적인 에너지와 카리스마 장점

일각선 오페라 해석의 깊이 의문도

차베스·마두로에 침묵 부역 논란



3 후원자를 자임한 명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왼쪽)와 두다멜. 4 지난해 LA 필하모닉 갈라 콘서트에 참석한 두다멜과 부인 마리아 발베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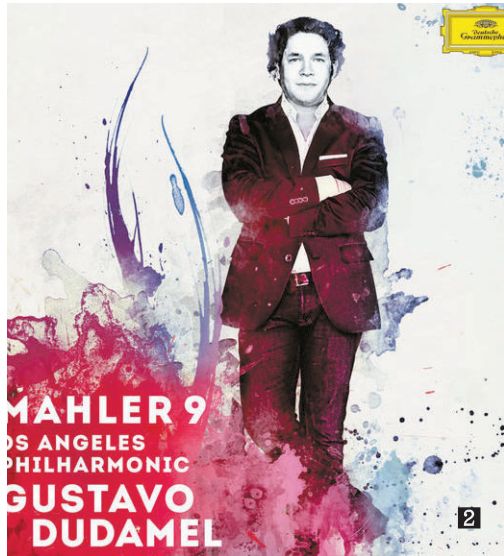


〈사진 두다멜 인스타그램·AFP·연합뉴스〉

블리 구장 공연에 직접 등장해 화제를 뿌렸다.

성공뿐 아니라 좌절과 논란 역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같은 슈퍼스타가 짊어져야 할 숙명이다. 두다멜은 2021년 파리 오페라 음악감독에 임명되며 오페라를 축으로 한 유럽 거점을 꾀했지만, 2023년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물러사 임했다. 표면적 이유는 가정이었으나, 실제로는 관료제에 익숙한 프랑스식 운영 문화와 스타형 리더십의 충돌이 본질이었다. 뉴욕타임스 평론가 알렉스 로스가 지적했던 '예측 가능하며 성숙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파리에서도 되풀이되었다. 웰스트리트저널 데이비드 머멜스타인은 그의 바그너 해석을 "서투르고 모호하다"고 평하며 "스타성은 탁월하나 오페라 해석의 깊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사생활 또한 가십의 대상이다. 2006년 발레리나 엘로이샤 마두렌과 결혼해 아들을 두었으나 2015년 이혼했고, 2017년 배우 마리아 발베르데와 재혼하면서 영화계와의 접점이 넓어졌다. LA에서 두다멜 부부의 일상은 언제나 파파라치 카메라에 포착되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당사자의 스트레스는 극심할 터다.



2

편성을 밟고 최고의 지휘대에 그를 서게 한다는 점에서 두다멜의 커리어는 동시대 클래식 음악의 모순과 희망을 압축한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한정호 런던 시티대 대학원 문화정책 매니지먼트 석사. 발레리나 박세은, 축구인 박지성 등 예술체육계 명사의 에이전시와 문화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에투알클래식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